

# 고흥, 수제맥주브루어리 활용 도시재생 본격화

입점 창업팀과 매장 운영 등 협약…내달 2일부터 운영

상인·주민과 상생 도모…“지속가능 브랜드 육성 지원”

고흥군이 수제맥주브루어리를 활용해 도시재생에 들어간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읍 전 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수제맥주브루어리의 본격 운영에 앞서 입점 창업팀과 고흥군 간 매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수제맥주브루어리의 운영 기반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안

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수제맥주브루어리는 고흥읍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1층은 양조·창업 공간, 2층은 수제맥주 전문점(PUB)과 창업 공간으로 구성. 지역 관광·먹거리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수제맥주브루어리는 2월 2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입점 창업팀은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춰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창업 공간 운영을 한다. 협약식 이후 열린 차담회에서는 개장 초기 운영 안정화 방안, 고흥 수제맥주와 로컬푸드 페어링 고도화, 전통시장·인근 상권과의 상생 협력, 공동 홍보·이벤트 기획, 위생·안전·서비스 품질 기준, 정기 교육·컨설팅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 등을 통해 총 5개 창업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매뉴 개발과 브랜딩, 홍보·마케팅, 창업 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흥읍 수제맥주브루어리 일원에서 열린 도시재생 수제맥주축제 ‘고흥 비어락(Beer樂)’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브루어리 기반 도시재생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제맥주브루어리는 창업팀과 상인,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 거점이다”며 “입점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군은 최근 고흥읍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수제맥주브루어리의 본격 운영에 앞서 입점 창업팀과 고흥군 간 매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순천 상공인들 “국가 전략 소부장 제조 권역 재편을”

상공회의소 입장문 발표

산업 공동화·가속화 우려

“제도적 장치 등 반영해야”

여수·순천 상공인들이 여수 울촌, 순천 해룡으로 연결되는 광양만권을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소부장 특화 제조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수·순천 상공회의소는 27일 여수상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적 산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위치시켜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전남·광주 대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의 향방과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이다”며 “산업 전략이 빠진 통합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만 남고 지역을 소멸시키는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만권이 석유화학·철강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

자, 항만·에너지·물류·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국내 대표 제조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 원료·중간재 공급지’라는 역할에 머물며 소부장 국가 전략의 중심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산업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전남 동부권은 기존에 담당해 온 국가 제조 기능을 상실하고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수·울촌·순천 해룡으로 연결되는 광양만권을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소부장 특화 제조 권역’으로 재편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여수·순천 상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국가 산업정책에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 제조·소부장 핵심 권역으로 명시할 것,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권역형 산업 재편 방향을 제도에 반영, 통합 이후에도 전남 동부권 제조 축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여수·순천 상공회의소는 27일 여수상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적 산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위치시켜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과 건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광양사랑상품권’ 12% 캐시백  
설 명절 맞아 소비촉진 기대

광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광양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2%로 한시 상향 운영한다. 광양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충전형 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10%를 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 기간 사용금액의 12%를 캐시백으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6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의 소비촉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보유 한도를 70만원으로 정했다. 상품권 가입·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농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신한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양사랑상품권 특별 캐시백 상향이 설 명절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광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새해에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 여수,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이끈다

5개 분야 연계 캠페인 전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민 스스로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

시는 가정, 학교, 직장, 교통 등 생활 전 영역에서 안전수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캠페인·홍보·진단·보험 등 5개 분야를 연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다양한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안전교육 ‘맞춤형 안전학당’을 운영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6500여

명과 미취학 아동 2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을 통해 안전 행동 실천을 제고한다.

또 계절·주제별 ‘생활 속 안전문화캠페인’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병행해 시민과 방문객의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인다. 특히 섬박람회 대비 안전 행동 요령을 쉽게 전파하고 민·관 합동 활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난 안전 인식도 진단’을 실시해 개인별 재난 대응 수준을 점검한다. 생활안전·사회재난·자연재난 등에 대한 인식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안전교육과 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총 30개 항목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운영·한정질환 진단비 등 3개 신규 보장항목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생활 속 작은 안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순천, 항공우주산업 실현 팔견어

5개년 기본계획 확인…“산업 생태계 구축 준비”

순천시는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3회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성과와 향후 우주산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항공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해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에 발맞춰 2030년까지 우주경제 거점 도약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5년 성과 보고와 2026년 추진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시는 올해 우주항공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도, 고흥군과 2026년 방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남해안 우주산업 벨트의 협력을 주도해 왔다.

또 지자체 개발 위성인 순천 SAT이 누리호 6호의 부탑재위성으로 최종 선정되며 지자체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누리호에 위성을 발사하는 우주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시는 발사체 성과를 바탕으로 방산과 위성까지 산업 범위를 확장하고,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 본격화, 위성개발 산업 확대, 기업 우주 방산 진출 기반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항공우주 도시연합강화 등을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위원회 논의와 기존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순천형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구례, 관광굿즈·농특산물 판매장 입점 공모

3월 로컬마켓 오픈 예정…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구례군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굿즈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빙구레스테이션에서 3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한 판매장에 참여할 공급업체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20일까지며, 모집 분야는 관광 굿즈와 농특산물이다. 농특산물은 구례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또는 이를 활용해 제조·가공한 제품이 대상이며, 관광굿즈는 구례의 특성을 담아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돼 있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전라사



구례군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굿즈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빙구레스테이션에서 3월부터 운영한다.

업팀 (061-780-2996) 으로 하면 된다. 군은 마켓 운영을 통해 구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례만의 매력을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

정흥=정명수 기자 jms050311@